

김해 오카야마 국제 金海-岡山 国際交流フォーラム 교류포럼

행사 개요

- 행사명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김해 - 오카야마 국제 교류 포럼
- 행사일시 2023. 2. 8.(수), 10:00 ~ 12:00
- 행사장소 김해 아이스퀘어호텔 2층 캐모마일 룸

사업 내용

- 일본 도자와 칼(일본도)로 대표되는 지역 오카야마와 국제 교류 진행
- 오카야마 대표 지역 기업가, 예술 활동가, 지역 활동 작가를 김해로 초청하여 도시 문화 공유 및 국제 고도(古都) 네트워크 형성

행사 일정

시간	구분	세부내용
10:00~10:05(05')	환영사	■ 포럼 환영사 (재)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손경년
10:05~10:20(15')	문화도시소개	■ 김해 문화도시 소개 (재)김해문화재단 김해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10:20~10:40(20')	사례발표1	■ 역사와 전통이 공존하는 오카야마 [발표1] 오카야마현40년 역사 기업 활동가 와케지마 에이지
10:40~11:00(20')	사례발표2	■ 오카야마 지역 문화 자원 활용 사례 소개 [발표2] 오카야마 전통 문양 섬유 공방 대표 마노 나나에
11:00~11:20(20')	사례발표3	■ 오카야마 예술 문화 활동 사례 소개 [발표3] 오카야마 지역 작가 나기라 코타로
11:20~11:50(30')	특강	■ 가야왕도,김해 [특강] 前 국립김해박물관장 임학중
11:50~12:00(10')	기념촬영	■ 단체사진 촬영
12:00~13:30(90')	오찬	■ 네트워킹 오찬 진행





CONTENTS

행사 개요 _____ 3

김해문화도시센터 소개 _____ 10

역사와 전통의 오카야마 _____ 28

지역 문화 자원 활용 소개 _____ 36

오카야마 예술 문화 활동 _____ 44

가야왕도(加耶王都), 김해(金海) _____ 52

歴史と伝統の岡山 _____ 64

地域文化資源活用のご紹介 _____ 72

岡山芸術文化活動 _____ 80

가야왕도(加耶王都), 김해(金海) _____ 88



김해

문화도시센터

소개



김해문화도시센터 소개

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유럽의 문화수도]

| 1985 아테네
유럽문화도시 지정

| 1999 '유럽문화수도'로 명칭 변경

1985년 아테네(그리스)를 시작으로
2022 카우나스(리투아니아),
에슈윌크랄제트(독일부르크),
노비사드(세르비아) 등 70여개 도시 지정

- 지정시 1,000,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최 인접한 도시 지역 포함
- 문화수도 내 문화유산 지정 의무 없음



01
국내 문화도시 정책의 변화과정



01 | 문화도시 정책의 변화과정

- 유럽의 문화수도
- 국내 문화도시

[국내 문화도시 지정 현황]

	충청 MARIANNEUNION	부산 MARIANNEUNION	전남 MARIANNEUNION	경남 MARIANNEUNION	제주 MARIANNEUNION
지정연도	2004년~2022년(2023년)	2004년~2011년(2013년)	2007년~2021년(2023년)	2000년~2022년(2023년)	2018년~2022년(2023년)
총-도시	150 도시	100 도시	10 도시	15 도시	15 도시
비고	문화도시 지정의 시작점으로 114개 도시 지정	경남문화도시 최초로 지정	전남의 전통문화유산 도시 지정으로 시작	전라남도 지정으로 시작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으로 시작
비고	국립사립박물관과 10개 문화도시 지정으로 문화도시 지정	문화도시 지정으로 시작	전남 문화도시 지정으로 시작	문화도시 지정으로 시작	문화도시 지정으로 시작
현황					

01
국내 문화도시 정책의 변화과정

【 국내 문화도시 추진 현황 】



01
국내 문화도시 지정 현황

2022 문화도시조성사업

시민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와 문화 가치를 담아내는 도시 부문 9개 과제 27개의 사업을 진행

비전	핵심가치	추진목표	추진과제
도시의 미래를 동구하는 역사문화도시 건설	역사	도시역사·DNA 발견	도시의 역사문화자원 도시역사·DNA 발견 역사문화자원 발굴 도시역사·DNA 발견
	시민	시민의 문화역량 증진	도시역사·DNA 발견 도시역사·DNA 발견 도시역사·DNA 발견
	지역	지역특성·역사·문화	도시역사·DNA 발견 도시역사·DNA 발견 도시역사·DNA 발견

02
2022 주요과제

02 2022 주요성과

3개 부문 28개 사업 추진
(2021 명시이월, 2022 사업 병행)



【 문화도시 정책에 대하여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됨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제 15조)
5년간 계획으로 지역 30개 도시를 지정 목표로 시작

■ 문화도시 의미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도화와 향유계층 확대를 바탕으로 체계적·차별화된 문화도시 조성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갖춘 10개 지정도시

- 법적 개념 : 지역문화진흥법 제 15조에 따라 문화재, 문화산업, 관광, 체육, 역사, 영상 등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향유계층을 견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 도시

- 이론적 개념 : 다양한 문화 공존하는 도시, 시민 공감, 고대문화유산 계승·재현, 새로운 서비스, 문화 향유를 위한 선진형 지원하는 도시

2022년 법정문화도시 지정 : 전국 18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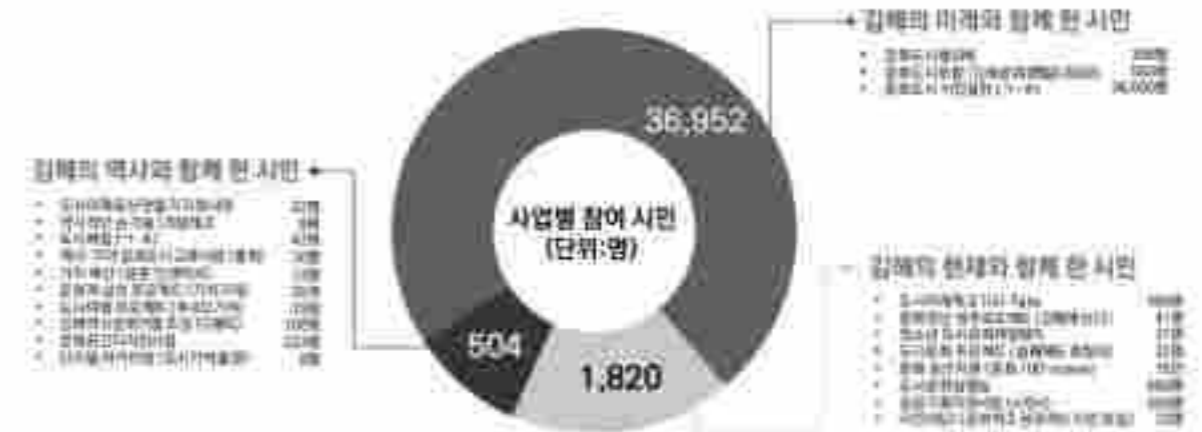


02
2022 주요과제

[문화도시 추진 방향]

- 1 대규모 사업 조성계획이 마난
→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 열매나 노년배의 휴식 (오래된 카페)
 - 2 중앙, 권 주도에서
→ 지역중심, 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로 변화
 - "급속도로 성장하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대안론 - 도래할 무서운 미래오는 전통 속에 이미 담겨 있다"
 - 3 단순 재정지원을 넘어선
→ 사회적 움직임과 구축과 연결형 지원
 - 오래된 가치 속에서 지대한 의미를 갖자
 - '가이'로부터 이어온 생존의 가치
 - 역사적 가치를 살 속에 이어가고, 시민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중심이 되는, 오래된 미래 **RENEWAL**
- ※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문화도시의 '역사'를 통해 도시-지역의 역사를 잇는다

2022 문화도시 김해 참여 시민 39,276명



[김해시 권역별 문화도시 사업 진행 현황]



2022년 사업 주요 성과

- | 01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제 6회 정책포럼 '문화도시 2.0 속의 포럼' 진행**
- 행정부 차관급의 선도사업으로 문화도시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고 문화도시 2.0 추진방향 및 정책제안을 위한 포럼 진행
 - 문화도시 간 사업규모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도시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2022년 사업 주요 성과

|02 제2대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의장도시 선출

-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18개 도시의 대표이장 소환
- 문화도시정책포럼, 문화도시WEEK, 국립문화도시 교육 및 네트워크사업 등 문화도시 공동사업 추진



02
2022 사업주요 성과

18

2022년 사업 주요 성과

|03 김해시 문화관광사업소 예산 설계 라운드테이블 진행

- 김해시 문화관광사업소의 예산을 분석해보고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진행
-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확대하여 시민들이 예산 설계에 참여해보고 정책을 제안해주는 라운드테이블 진행



02
2022 사업주요 성과

19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의장도시 개요]

-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문화도시의 협의체(전국 18개 도시)
- 회장 김해시장 송태원
- 회장임기 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31일(1년간)
- 협의체 역할
 - 문화도시 정책 추진과정 및 운영 개선
 - 문화도시 발전방향 및 사업성과 확산
 - 기타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동과제 및 공동사업 추진

02
2022 사업주요 성과

18

2022년 사업 주요 성과

|04 도시문화실현실 행정형치형 실험실 운영을 위한 행정기관 업무 협약

- 김해시(김해문화재단)와 행정기관 업무 협약 체결(2022. 4. 21.)
- 김해시(김해문화재단)와 행정기관 업무 협약 체결(2022. 6. 8.)



▲ 김해시(김해문화재단)와 행정기관 업무 협약 체결



▲ 김해시(김해문화재단)와 행정기관 업무 협약 체결

02
2022 사업주요 성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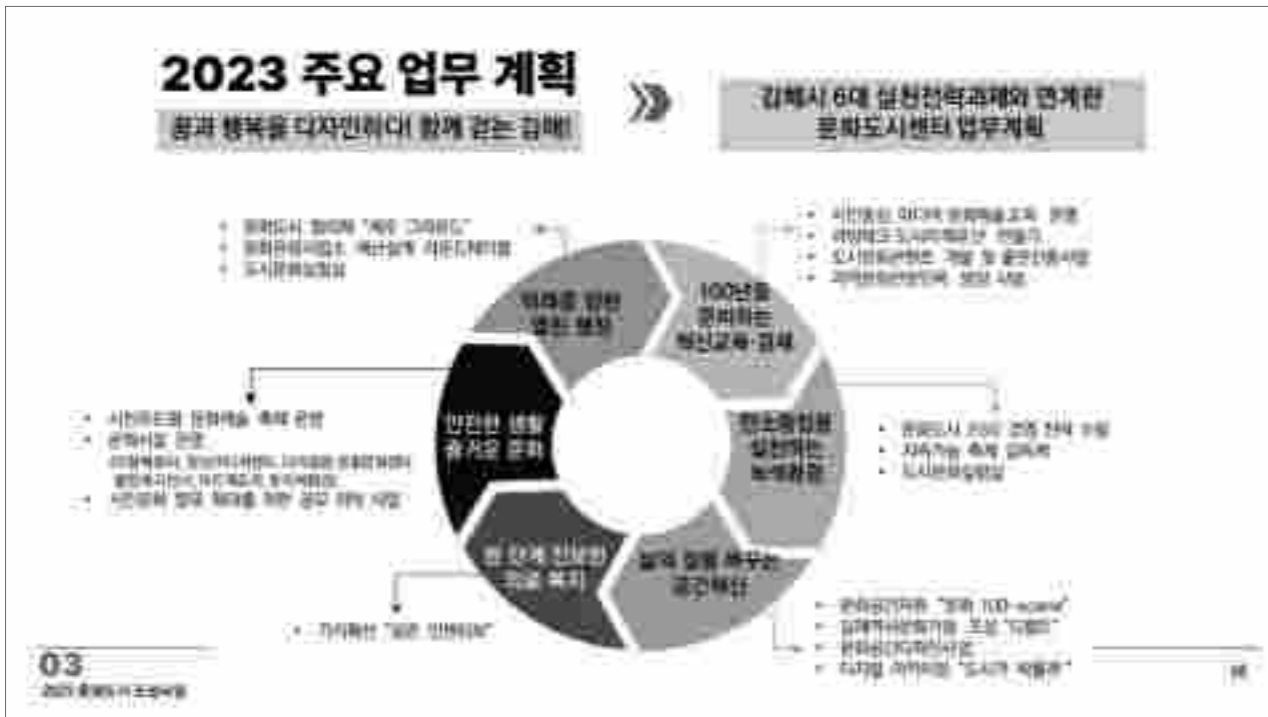


2023 문화도시조성 사업

- 사업명: 김해 문화도시 조성사업
- 사업기간: 2021~2025년(5년간)
- 위치: 김해시 전역
- 분야: 역사전통 중심형
- 사업비: 190억원(국비 99.5, 지방비 90.5)
- 사업내용: 3개 분야 8개 과제 29개 세부사업

구분	구분명	주요사업명
I. 역사·문화	1. 김해시역사 재발견	김해시 100주년 기념 역사·문화유산 탐방
	2. 김해시역사 재발견	김해시 100주년 기념 역사·문화유산 탐방
	3. 김해시역사 재발견	김해시 100주년 기념 역사·문화유산 탐방
II. 시민참여	4. 김해시역사 재발견	김해시 100주년 기념 역사·문화유산 탐방
	5. 김해시역사 재발견	김해시 100주년 기념 역사·문화유산 탐방
	6. 김해시역사 재발견	김해시 100주년 기념 역사·문화유산 탐방
III. 도시환경	7. 김해시역사 재발견	김해시 100주년 기념 역사·문화유산 탐방
	8. 김해시역사 재발견	김해시 100주년 기념 역사·문화유산 탐방
	9. 김해시역사 재발견	김해시 100주년 기념 역사·문화유산 탐방

03 김해 문화도시 조사업무



[2023 문화도시 5대 핵심과제]



03

2023 문화도시 조감도

31

문화도시를 통한 2025년 김해의 변화

2. 문화관련 스펀지효과 활성화

[핵심 키워드] 역사도시, 문화청년, 청년도시, 역량강화

| 문화관련 창업 업체 수



| 문화콘텐츠 유통용 '가공' 콘텐츠 수



| 역사기반 콘텐츠 수



03

2023 문화도시 조감도

32

문화도시를 통한 2025년 김해의 변화

1. 함께 참여하는 문화도시

[핵심 키워드] 역사도시, 문화청년, 청년도시, 역량강화

| 역사문화도시에 대한 인식도



| 김해문화도시 카카오페널 가입자 수



| 문화도시 시민 참여자 수



03

2023 문화도시 조감도

33

문화도시를 통한 2025년 김해의 변화

3.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

[핵심 키워드] 문화청년, 시민도시, 역량강화

- 22년 문화다양성 50-리얼 킬 캠페인도 개발 완료
- '23년 문화도시부터 선택관리 진행

| 문화다양성 성과 관리 제형



| 문화정책 포에 중 심인사적 관점 반영



03

2023 문화도시 조감도

34

문화도시를 통한 2025년 김해의 변화

4. 도시의 문제를 문화로 해결

▶ 문화도시사업(문화마을, 지역축제, 문화행사, 기업문화)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03

2025 문화도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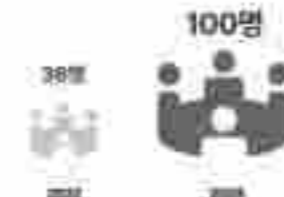
15

문화도시를 통한 2025년 김해의 변화

5. 청년이 활기찬 김해

▶ 문화도시사업(문화마을, 지역축제, 문화행사)

| 청년 프로젝트 참여자 수



| 외지청년 김해 유입 의지



03

2025 문화도시사업

17

문화도시를 통한 2025년 김해의 변화

5.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문화예술

▶ 문화도시사업(문화마을, 지역축제, 문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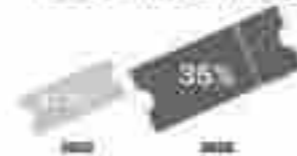
|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신규 민간 문화공간 발굴



| 예술 행사 직접 참여율(공연, 전시 등)



| 문화예술 강사 수



| 문화예술 관련 사업체 종사자 수



03

2025 문화도시사업

19

문화도시를 통한 2025년 김해의 변화

7. 예술인이 존중 받는 김해

▶ 문화도시사업(문화마을, 기업문화, 지역축제)

| 문화도시사업 참여 예술인 수



| 예술인 참여 콘텐츠 제작 수



| 예술인 공모 지원 건수



03

2025 문화도시사업

21

문화도시를 통한 2025년 김해의 변화

문.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가능성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가능성, 자립가능, 문화도시, 2025년

문화사업 관련 조세 수



문화관련 예산 증가



03

김해 문화도시 사업

19

김해 문화도시센터 소개

"문화도시" — 김해

역사와

전통의

오카야마

KOR

와케지마 에이지



역사와 전통의 오카야마

와케지마 에이지

안녕하세요, 와케지마 에이지(分島英二)입니다.

이 중에서는 아마 제일 연장자일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주 오랫동안 오카야마에 살면서 일을 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학은 도쿄의 대학을 졸업했지만 태어나서부터 쪽 오카야마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오카야마 사투리가 몸에 배었습니다. 일본어를 잘 아시는 분은 저의 사투리를 용서해 주세요.

원래 대학 졸업 후 자동차 산업에 취업했었지만, 한 의류 업체의 권유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카야마(岡山)시골에서 도시인 도쿄(東京)로 영업을 가는 일도 저에게겐 즐거웠습니다. 패션 메이커로서는 병아리 같은 회사였지만 대기업과 같은 씨름판에서 겨룰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회사를 퇴사하고 35살의 나이에 르쁘라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와 의류 모두 일류회사가 아니었기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노력한 것이, 저로 하여금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상품화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타올 실을 사용하여 레이스 직조기에서 생산한 손을 닦을 수 있는 레이스 타올 손수건의 개발, 타올지 스카프로 만든 땀을 흡수하고 세탁 가능한 모자 개발 등, 둘 다 20년간 판매되고 있는 롱런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최근에는 유도복에 사용하는 천으로 만든 세탁 가능한 슬리퍼, 일본 한지로 만든 실을 사용한 세탁 가능한 욕실 매트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모든 제품은 오카야마 현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 오카야마에 사는 탓인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물건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온 날이 길다보니 제 소개가 길어졌습니다만 지금부터 제가 살고 있는 오카야마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카야마는 일본 중서부에 위치한 15개의 소도시로 이루어진 현이며 현청소재지인 오카야마시와 쿠라시키에 인구가 집중되어있으며 약 200만명이 거주하는 중 소도시입니다. 과거의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점은 김해와 유사합니다.

고대에는 이웃한 히로시마현의 동부와 함께 '기비(吉備) 지방'이라 불렸으며, 일본 고대사가 대체로 그렇듯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당시 최신 문화와 기술을 전파하였고 아스카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앙집권화가 진행되며 기비 지방은 세 곳으로, 나라 시대에는 네 곳으로 분할되었습니다.

헤이안 시대 이후, 무로마치 시대에 본격적으로 항구도시가 발달하고 시장이 열리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서부 일대인 빗추 호소카와 지파와 동부 일대인 비젠노쿠니와 미마사카노쿠니에는 아카마쓰 씨가 각각 슈고를 지냈으나, 두 가문 다 자리 잡지 못하고 센고쿠 시대에는 군소 호족들이 할거하는 형세가 되어 중기엔 여러 세력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전국시대 말기에는 비젠의 우키타 가문과 빗추의 미무라 가문이 성장해서 서로 싸우다 미무라가문이 망했고, 우키타 가문은 미무라 가문을 멸할 때엔 모리 가문을 섬겼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다 가문의 산하에 들어가 주고쿠 군단장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함께 싸우면서 오다 가문의 다이묘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타카마츠 성은 성처와 제방만이 남았지만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소이기에 일본 100성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오카야마시 외곽에 JR 빗츠타카마츠역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모리 가문과의 화의로 빗추와 미마사카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비젠 우키타 가문의 우키타 히데이에에게 하사해, 오카야마 전체가 우키타 가문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우키타 히데이에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총애를 받아서 대영주가 되었는데, 1590년에는 자신이 거점으로 삼을 오카야마 성을 건설하여 1597년에 완공했습니다. 성 주변에 성하마을이 발달하면서 현재 오카야마 시가지에 이른다고 전해 집니다. 지금은 이 오카야마성도 대표적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오카야마성은 강 건너편에 위치하는데, 이곳에는 현재까지도 영주가 성에서 배를 타고 올 때 사용한 선착장의 흔적이 있으며, 근대에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공습에 의해 오카야마성의 천수각이 소실되고 고라쿠엔 또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후 복원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일본 3대 정원(日本三名園)의 하나로 유명한 오카야마 고라쿠엔(岡山後樂園)이 1687년~1700년에 걸쳐 건설되었습니다. 주요 관광지중 하나인 고라쿠엔(後樂園)은 일본의 3대정원 중 하나로 손꼽히며 도쿄의 정원보다 그 규모가 2배정도 크고 아름답습니다.

쿠라시키 미관 지구도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쿠라시키 미관지구는 국가의 주요 건축물 보존지구로 선정되었으며, 1600년대 물자수송으로 번영을 누렸던 이 도시는 역사와 현재의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 관광객들에게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적 명화를 볼 수 있는 오하라미술관과 쿠라시키를 대표하는 섬유공장에서 재탄생한 쿠라시키 아이비스퀘어, 쿠라시키 민예관 등이 곳곳에 자리하여 동서양의 조화로 운치를 더해 주며 특히 작은 배를 타고 거리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쿠라시키 강 유람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옛 전통 상가를 현대풍으로 수리한 숙박시설과 게스트 하우스 등에서 머물면서 전통문화와 현대가 공존하는 미관지구를 만끽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현재 오카야마성은 강 건너편에 위치하는데, 이곳에는 현재까지도 영주가 성에서 배를 타고 올 때 사용한 선착장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

역사와 전통의 오카야마

와케지마 에이지

1871년 오카야마시는 오카야마현의 현청 소재지가 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의 1945년은 오카야마 공습으로 큰 피해를 받아 1000명 이상이 희생이 되었고 10만명 이상 집을 잃기도 했습니다.

전후의 혼란기를 지나 도시는 순조롭게 발전해 주변 시정 촌과의 합병을 진행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산요 신칸센 오카야마 역과 세토 대교선이 개업한 이래 철도 교통의 요지가 되고 있습니다. 1996년에는 국가로부터 중핵시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 4월 1일에 정령 지정 도시로 이행해 구제가 시행되어 기타구·나카구·히가시구·미나미구가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해는 도자기가 유명한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오카야마에서 오리베야키를 제작하고 있는 코지마 카이타로씨는 자동차를 사 주셨던 고객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도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입니다.

오카야마 현 구라시키시에 오하라 미술관이라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서양 미술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미술관이 있습니다만, 그 미술품을 수집하신 것이 화가 고지마 토라지로이고, 카이타로씨는 그 분의 손자입니다. 고지마 카이타로씨가 도예를 공부하신 곳이 오카야마현 비젠시이며 비젠야키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역에서 내리면 근처에 비젠야키 가마 굴뚝이 여기저기 보이며 매우 운치 있는 마을입니다. 비젠야키는 유약을 뿌리지 않고 고온에서 굽는 도자기로 흙과 불꽃의 예술로 불릴 정도로 자연이 가져다주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작은 1000년 이상전이라고 알려져있으며 에치젠, 세토, 조나메, 시가라쿠, 단바, 비젠과 일본의 로코요 중 하나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그림을 그려놓은 자기에 올려 오래 빛을 보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젠야키가 빛을 보게 된 것은 1964년 오사카와 오카야마 사이에 산요 신칸센이 개통되면서입니다. 신칸센 선로 건설 중에 많은 비젠야키 조각이 발견되어 그 아름다움에 도예가분들이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비젠야키인 고비젠야키가 재검토되어 현대의 비젠야키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비젠야키로 마시는 맥주는 거품이 잘 나고 맛이 부드러워서 더욱 일품이라고 전해집니다.

아쉽게도 저는 알코올을 못 마십니다^^ 김해는 철기문화로도 유명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오카야마에서 칼로 유명한 곳이 오카야마현 세토우치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조모우 「三鳥毛」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명품으로, 오카야마현 세토우치시에서 전국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을은 어떻게든 본토로 가져오길 소원해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세토우치시는 기부 및 모금운동을 하여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세토우치시의 비젠 나가후네 도검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두 점에 있어서도 오카야마현은 오랫동안 역사가 이어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짧지만 유구한 역사를 이어주고 남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해와 오카야마를 소개하는 이 시간도 그러한 역사를 이어주는 교량역할의 시간이 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강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문화

자원

활용

소개

KOR

마노 나나에



안녕하세요, 마노 나나에(間野菜々江)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 안에서도 크게 눈에 띄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오카야마 현에 어렸을 때부터 살고 있습니다. 서쪽은 다들 알고 계신 원폭 피폭지인 히로시마 현, 동쪽은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의 피해지인 효고현입니다.

오카야마 현의 세토우치 연안 지역은 '맑은 나라'라고 불리는 것처럼 강수량이 적고 일조 시간이 길며, 큰 하천도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고 재해가 적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토지 특성상 농업이 활발하여 전쟁 전, 벼농사 면적을 늘리기 위해 남부에서는 간척이 크게 이루어져 벼농사 수확량을 늘렸습니다. 간척지를 이용하여 이구사(타타미에 사용되는 식물)와 면화 재배가 활발해졌습니다. 그 면화 재배가 오카야마 현에 방직 공장이 차례차례 생겨난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카야마 현에서는 현청 소재지 오카야마시 서쪽에 쿠라시키시가 있어 오히라 미술관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이 미술관을 만든 사람이 쿠라시키 방직의 창시자 오히라 마고 사부로입니다. 저는 오카야마 시내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상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오카야마 시내의 전문학교에 갔습니다.

의상 디자인이라는 분야는 일본에서는 역시 수도인 도쿄에 가지 않으면 좀처럼 유명해지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꿈꿨던 것이 아니었고 조금이나마 재봉틀을 밟을 수 있게 된다면 만족했기에 오카야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이너로 취직할 당시 오카야마에는 일자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카야마 시내의 한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일본에서는 1985년 버블이라는 호경기 시대를 맞이하여 만들어도 만들어도 상품이 부족한 시대였기에 연일 연야 밤늦게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오카야마현에 패션 관련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오히라미술관의 창립자인 오히라씨가 일으킨 방직 회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목화를 재배하여 실을 만든다. 실을 만들면 천을 짜다. 천을 짜면 천을 물들인다. 그 천으로 의복을 만든다. 그러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던 곳이 오카야마현입니다.

제조사에 있어서 감사한 것은 우선 봉제 공장이 많이 있고 게다가 가깝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솜씨가 좋은 공장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유통비용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 판매처만은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에 의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가 압도적으로 다른 것과 지금처럼 인터넷 같은 것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말하는 버블 시대가 끝나고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시대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래도 고객의 요구에 세세하게 반응해 오더를 받고 계속해서 상품을 개발해 만들고 있었으며, 그 무렵 유행하기 시작했던 인터넷 SNS에 만든 상품을 소개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글을 올리기 때문에 조금씩 즐겁게 봐주시는 팔로우 분들도 많아져서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출판사 쪽에서 '이 게시물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지 않을까요?'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출판사 분이 봐주신 사실은 몰랐었는데 2개월 정도 집필시간을 거쳐서 160페이지 분량의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책의 제목이 '밤중에 재봉틀을 밟으면서'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 성수기에 책을 읽는 분은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다시 저에게 많은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량으로 상품을 만들던 시절보다 한점 한점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만들어가던 저에 대한 공감을 표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또한 같은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의 공감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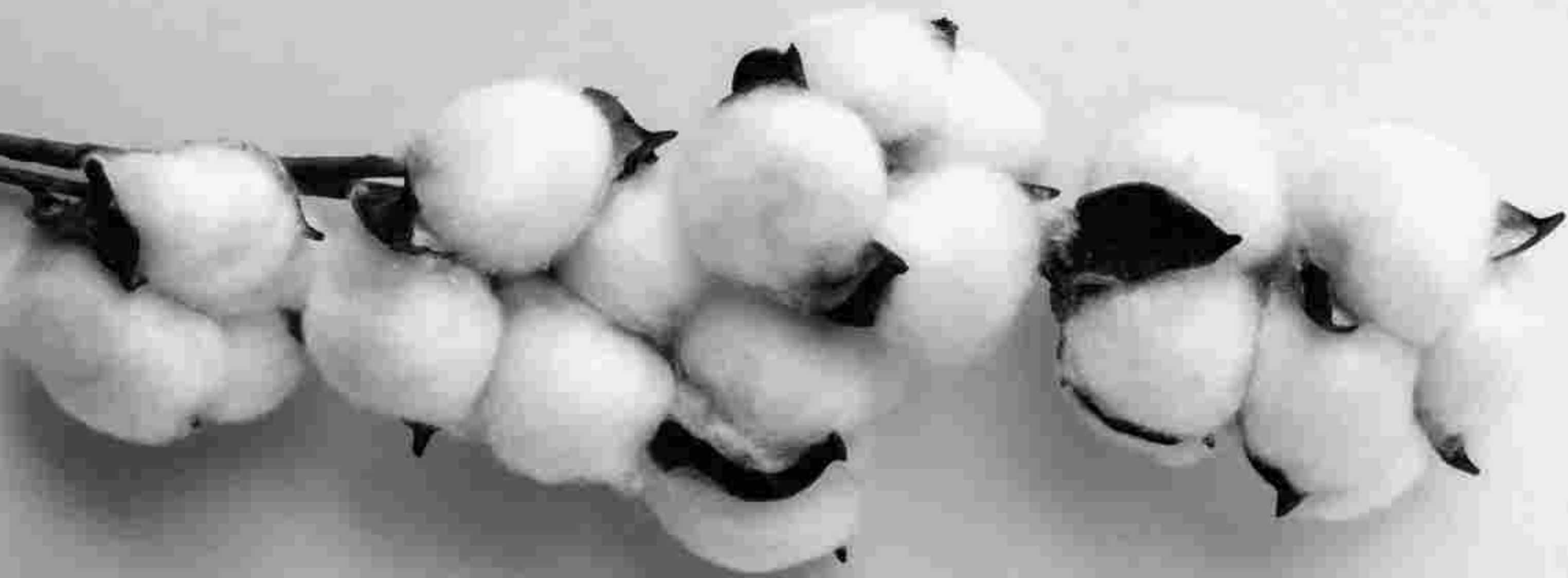
지금은 오카야마현 아카이와시라는 인구 4만 명 정도의 마을에 6년 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집의 절반 정도를 아틀리에(공방)로 개조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카야마 시내보다 아직 시골이라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전국 어디서나 손님이 방문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밤이 되면 통신판매 사이트에 주문이 들어옵니다. 아침에 들새 소리로 일어나 정원에 심은 꽃들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미래는 점점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계속하면 진짜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화하면서 계속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좋아하는 마을에서 일을 하며 사는 일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카야마에서 계속 일하고 사는 이유입니다. 이상 저의 서투른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하면
 진짜가 될 수 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화하면서
 계속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카야마

예술 문화

활동

KOR

나기라 코타로



인사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기라 코타로(柳楽晃太郎)입니다. 어제 오카야마에서 김해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직조' 라는 행위 자체에 주목하여 작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헌옷을 찌거나 여러 사람과 한 장의 천을 찌면서 '직조'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 탐구해 왔습니다.

경력

오카야마 출신이며 도쿄 예술 대학 대학원에서 염색과 직조를 전공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5년간 요코하마 미술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했습니다. 그 후 문화청 재외연수 제도로 1년간 독일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귀국 후에는 작가 활동과 병행해 유학생의 미술 대학 진학 지원을 실시하는 예비학교나 도쿄 가정 대학에서 강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현재는 교육 관련 활동은 잠시 쉬면서, 창작과 표현 및 작가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카야마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저는 2012년~2019년까지 오카야마현 카사오카시 시라이시시마에서 아티스트 인레지던스와 개인전등의 예술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8년 1씨상 (1氏賞) 이라는 오카야마 유카리 작가를 대상으로 한 어워드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최근 활동으로 2022년 연말 오카야마 현립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현재 오카야마에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제 '장소 재활'에 대하여

오늘은 모처럼의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 가장 소개하고 싶은 오카야마현에서 하고 있는 예술 활동 '장소 재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카야마현 하야오키에 있는 유한회사 오키무네의 톱지붕 공장을 무대로, 거기에 관련된 사람과 장소가 본래 가지고 있던 기능이나 목적에 주목하여, 역사를 존중하면서 그것을 표현의 힘을 빌려 다시 되찾아 가기 위한 예술 활동입니다.

제목에 리노베이션이 아닌 재활을 선택한 이유는 이 활동이 단순한 장소의 쇄신이 아니라 복원, 부활이라는 의식으로 임하고 있으며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활동 이미지를 전달하기 쉬운 단어가 "장소 재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장의 기능과 목적은 물건을 만들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를 위해 고안된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과 목적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청소 및 손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작가의 제작 활동을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시된 작품을 구입하거나 위탁제작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 본래의 목적과 힘을 살린 예술의 형태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제안입니다. 이것들이 이 장소가 가진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물건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활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힘도 재활해 나갑니다. 이를 위해 공장에서는 자연광을 조명으로 사용합니다.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 각자의 일을 합니다. 작업 중에는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고, 인사를 거르지 않는 것으로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해 갑니다. 이곳은 사람과 시간을 마주하기 위한 공간이 되어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 당연한 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현대의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당연함을 마주하는 것이, 그 자리와 관련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활력도 되찾아 가는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자선 활동이나 사회복지 활동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목표는 이 활동으로 인해 자신들의 생활을 더욱 좋은 방향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영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나 사람의 재활을 하는 목적도 따지고 보면 더 잘 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실천해서 보여줄 때 비로소 활동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에서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지금부터는 이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청소와 인사입니다.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청소는 미술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인사는 교제의 기본입니다. 재활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교제, 둘러싼 환경이나 이웃과의 교제, 서로를 존중하며 활동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된 활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지금까지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해 왔지만,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를 하고 장소를 정돈하고 제작을 하고 표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당연한 것 같은 이 두 가지 행동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작가가 별로 없다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 실감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술 활동에서는 청소와 인사를 잘 하는 것을 참여 조건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 활동의 배경

원래 이 일의 시작은 오키무네(沖宗) 씨가 저에게 2022년에 공장을 새로운 작품으로 재건 촉해달라는 요청을 해온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공장에 들어갔을 때가 마침 저녁 무렵이었고 북창문으로 들어온 늦은 오후의 햇빛에 공간이 붉게 물들면서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꽃뚫자리는 오카야마를 대표하는 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생활양식의 변화로 정초(이쿠사,타타미)를 사용한 상품의 유통은 점차 축소되었고, 그 변화로 인해 제작활동의 손길이 멈춰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그 장소가 가진 본연의 의미인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간"에 가능성을 느끼고 먼저 청소를 해 내감으로써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청소나 인사를 계속하다 보니 오래된 기둥이나 벽, 창문이 다시 윤기를 되찾았고 장소에 대한 애착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기분도 다시 활기를 되찾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표현 활동으로 오키무네의 장소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면에서도 기본면에서도 모두가 건강해졌다고 느끼고, 그것을 자신이 살아가기 위한 영리 활동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 활동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그리고 이 활동은 장래적으로 작가와 아트 이벤트를 통해 지역 주민과의 교제 방법도 제안해갈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이나 특정 회사를 활기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활동에 관련된 사람과 그러한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사람으로 나뉘게 되고 당연히 전자와 후자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가 당사자가 된 사람들만이 이익을 얻는 것처럼 당사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도 비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은 그것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만의 활성화로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역이라는 막연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만두고 솔직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활성화라고 선언하는 것이 더욱 건전하고 목적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며,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술과 사회의 관계적 방법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결론이 이런 거(장소재활)였어요. 입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서 그것들을 실천해 보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기존의 아트 이벤트가 안되는건가? 라고 물으면 제 대답은 NO입니다.

저 자신도 지금까지의 10년간 대지의 예술제 관련 이벤트나 오카야마현 카사오카시에 있는 시라이시시마 같은 프로그램에 참가해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작가 자신의 실적으로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매우 고마운 경험이 되었고,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 덕분에 제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기존 예술제나 아트 프로젝트가 주최하는 측도 받는 측도 '아트로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대의명분과 같은 선택밖에 할수 없게 되어 버리는 상황이나 동조압력과 같은 감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안으로 그 선택지를 늘려도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아트와 시민의 교제 방법, 아트와 사회의 교제 방법도 전례 없는 전개를 보여줄 수 있는 미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소개한 예술 활동 「장소의 재활」은 2023년 2월 19일에 오카야마현 쿠라시키시 차야초에 있는 현지의 공장에서 정식으로 활동을 개시합니다.

첫 번째 행사로 '스스하라기'(煤払い/연말에 천장의 그을음과 마루 밑의 먼지까지 털어내는 대청소)를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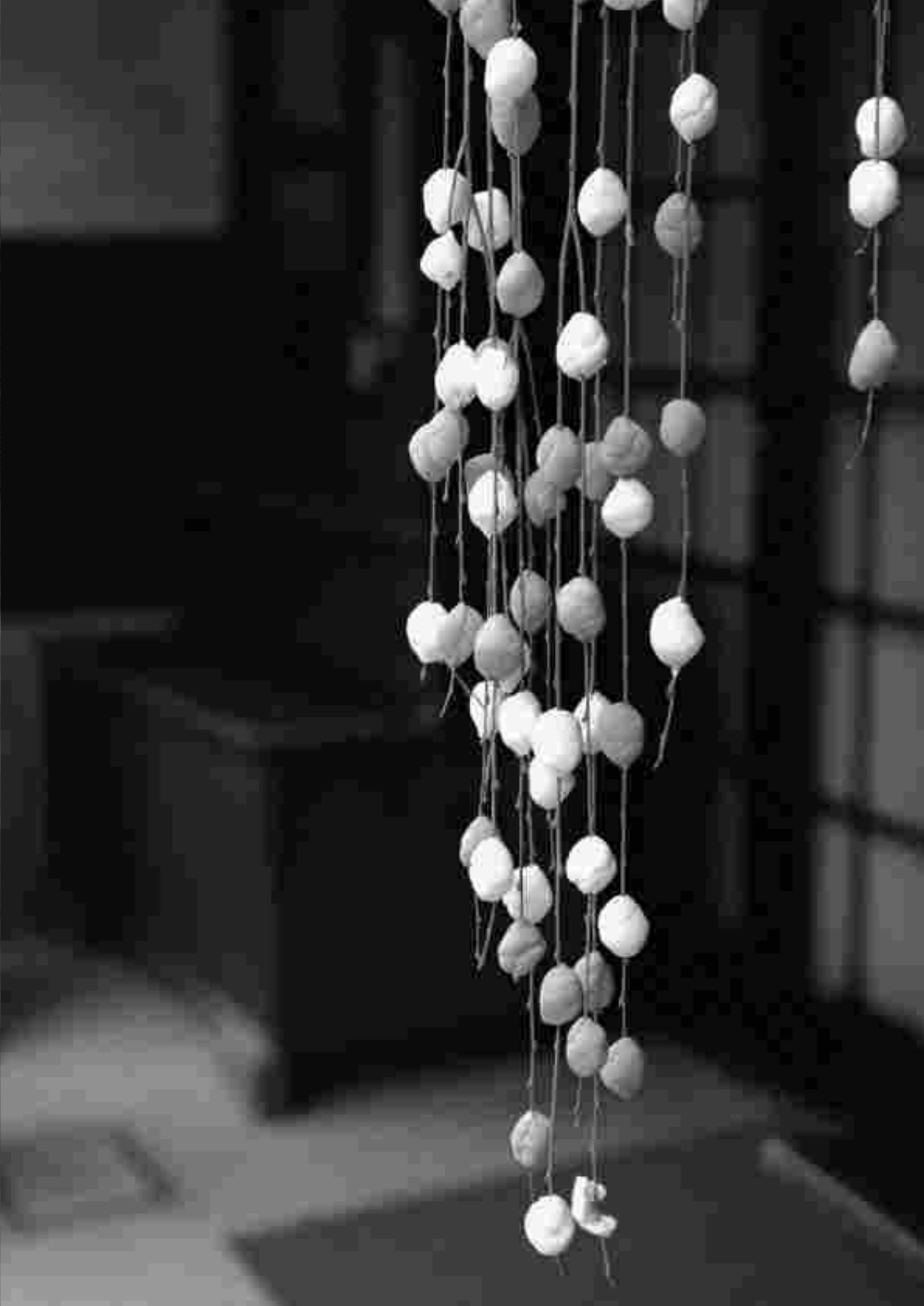
본래 새해맞이 대청소로 진행되는 행사이지만, 이를 그동안 쌓인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때를 맞이하는 행사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토벽 수리라는 미장 시연과 가마 짓기 등 연중행사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일본에 오실 때는 꼭 이 공장을 보러 와 주십시오. 물론 작품 구입이나 시설 설치 등 실제 상담도 환영입니다! 이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카야마 성을 건설하여
1597년에 완공했습니다.
성 주변에 성하마을이 발달하
면서 현재 오카야마 시가지에
이른다고 전해집니다.





가야왕도

加耶王都

김해

金海

KOR

임학중(前 국립김해박물관장)



가야왕도 加耶王都 김해 金海

임학중(前 국립김해박물관장)

1. 머리말

가야는 42년에 세워져 562년에 망하였습니다. 500년 이상 존속하였던 고대 정치체입니다. 영역은 '동쪽으로는 황산강, 서남쪽으로는 넓은 바다, 서북쪽으로는 지리산, 동북쪽으로는 가야산, 남쪽은 나라의 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낙동강 일대의 경상도와 전라도 동부 일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와 같은 시기입니다. 나름의 독특한 문화, 제도 혹은 관제, 영토가 있었지만 '사국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학자들이 '국가'를 규정하는 틀에 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왕이 존재하였고, 불교도 있었으며, 연맹체로도 발전하였으므로 엄연한 고대국가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통일된 왕국으로 통합되지 못하였고, 종교(당시는 아마도 불교였겠지만)의 공인도 없었고, 법이나 제도로 완비되지 않았으므로 고대국가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는 분명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이를 자랑하여도 좋습니다.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하여도 가야는 '신비의 고대왕국'으로 불렸습니다. 역사 기록이 소략하고 제대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에 의해 이제는 더 신비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가야를 개괄하고, 주로 김해의 가야 이야기에 한 발 더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2. 가야사 개설

가. '가야'의 이름 : '가야'의 이름으로는 '가라, 가야, 임나'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오는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라'

『南齊書』, 『日本書紀』(加羅), 『梁書』(伽羅), 『北史』, 『隋書』(迦羅), 『日本書紀』(柯羅), 『三國史記』(加良), 『三國遺事』(駕洛·呵囉)

2) '가야'

三國史記(加耶), 『三國遺事』(伽耶), 『新增東國輿地勝覽』(伽倻)

3) '임나'

『廣開土王陵碑』, 『日本書紀』, 『三國史記』强首傳, 『眞鏡大師塔碑』 등(任那)

나. '가라국'의 이름

1) '구야국' - 『三國志』 위서 한전 변진조(狗邪國)가 가장 오래된 기록임, 『三國志』 위서 왜인전(狗邪韓國)

2) '가야국' - 『三國史記』, 『三國遺事』

3) '가라국' - 고려 문종 3년(1076)년에 금관주지사(지금의 김해시장)가 편찬한 역사서이나 전하지 않고, 일연선사가 채록한 『三國遺事』 駕洛國記가 전함. 다른 이름과 달리 김해를 지칭함

4) '임나' - 「광개토왕릉비」의 '임나가라(任那加羅)', 『三國史記』 강수전의 '임나가라(任那加良)', 「진경대사탑비」의 '임나왕족(任那王族)' 등이 있지만 『日本書紀』에 주로 사용

5) '쇠나라' - 『日本書紀』 흥명23년조에 나오는 이름. '수에(Sue)'로 읽음. 수혜기(須惠器)로 쓰고 '수에키'로 읽은 토기 등을 참고하면 가야를 지칭함

6) '금관국' - 김해의 가야국을 통합한 신라가 붙인 이름으로 가야 때는 없었음

7) '금관가야' - 가라국을 정복한 신라가 김해에서 생산되는 쇠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정단위인 '금관군(金官郡)'에서 유래

다. 가야 이전의 세계

1) 청동기시대 - 돌도끼, 무늬없는토기, 청동기, 논농사, 지석묘 등으로 대표. 내동 지석묘, 김해패총 D구 지석묘, 구산동 우암 지석묘, 수로왕릉과 서상동 지석묘, 율하와 장유 지석묘, 구산초교 앞 지석묘 등(기원전 2천년~기원전3세기 혹은 기원전후)



그림 1 구산동 지석묘 전경



그림 2 구산동 지석묘 세부

2) 초기철기시대 - 한국식동검, 철기의 등장, 수로를 맞이한 아홉 촌장. 김해패총 D구 옹관, 봉황대 환호 등(기원 전 3세기~기원 후 42년)

라. 삼한 혹은 초기 가야 : 기원 전후부터 3세기까지는 보통 삼한(三韓)으로 봄. 고고학에서는 원삼국시대. 초기 가야로도 봄. 목관묘(木棺墓) 사회. 다호리, 가야의 숲 3호 목관묘. 마. 가야 : 五加耶 혹은 六加耶와 列國. 소국에서 대국으로(양동리 묘와 대성동묘). 철의 왕국, 해상왕국(두 개의 선착장), 蒲上八國의 전쟁(3세기 초), 광개토대왕과의 싸움. 연맹체.

바. 임나일본부설 -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일본 역사학자들이 주장한 학설의 하나. 왜국의 神功王后가 369년에 가야 정복한 후 통치했다고 함. 『日本書紀』의 신공왕후 삼한 정벌 설화를 바탕으로 정리해낸 것. 식민 지배를 위하여 만든 허구에 불과. 최근에는 가야에 주재하는 왜국의 사절단이라는 주장과 함께 함안의 아라가야에 있던 특수 위무관서 등으로 재해석되기도 함

가야가 고대국가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는 분명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왕도 加耶王都 김해 金海

임학중(前 국립김해박물관장)

3. 가야왕도 김해, 한 발 더 들어가기

가. 구야국(狗耶國)의 왕도(王都)

주지하다시피 김해는 가야의 고지입니다. 여섯 가야의 만이로서 고대 한반도 동남단에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신비의 고대왕국 ‘가야’가 발상한 지역입니다. 가야는 신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록으로 잘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비가 서서히 벗겨지고 우리 앞에 막 다가오기 시작한 것은 불과 30여 년 전, 김해 대성동의 가야묘가 발굴조사되면서부터입니다. 가야의 고지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조그마한 구름 하나가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면서, 가야의 왕이나 귀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학술적인 성과는 물론이고, 그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가야사 연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김해에서는 실로 엄청난 발굴이 이루어졌고 가야사의 많은 신비가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성과요 개가였습니다. 보통 ‘금관가야’라고 하는 가야의 만이 나라는 원래 ‘구야국’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금관가야’로 부르고 있지만, 그 이름은 훨씬 후의 이름입니다. 구야국 혹은 금관가야의 왕도에 남아 있는 왕경유적 몇예를 일람합니다.

나. 구지봉(사적 제429호)

수로왕이 붉은색 보자기에 싸여 하늘에서 내려온 곳입니다. 예쁘고 아담한 동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건국신화가 고이 숨 쉬고 있는 곳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 정상부 한쪽에는 지석묘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동산 자락에서는 청동기시대의 환호와 많은 무문토기들이 채집됩니다. 이 지석묘와 환호(環濠), 무문토기는 시내 곳곳에 남아 있는 지석묘와 함께 바로 수로를 왕으로 추대하였던 구간(九干)세력의 흔적입니다. 한 나라의 시조가 태어난 곳. 그 시조를 맞이하고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활 터. 당연히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림 3 구지봉



그림 4 구지봉 지석묘

다. 봉황동 유적(사적 제2호)

1900년대 초반에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 처음 조사된 이래 60여 차례나 발굴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탄화미(炭化米)가 출토된 곳으로 유명합니다. 중국의 신(新)나라 화폐인 화천(貨泉), 일본 야요이(彌生) 시대의 옹관(甕棺) 등이 출토된 곳입니다.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밝혀진 묘역이 있는 거대한 고인돌이 조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金海 會峴里 貝塚이라고 배웠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우리나라 사적 제2호입니다. 경주 포석정지가 사적 제1호이니 가야의 고지에 사적 제2호를 부여한 상징성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패총의 옆 구름과 해반천 가도 모두 유적이 밝혀져 지금은 유적의 범위를 더 넓혀 봉황동 유적으로 사적을 확대 지정한 곳입니다. ‘가야인체험촌’을 만든다고 봉황대 서쪽 해반천 가를 대규모로 발굴 하였더니, 우리나라 고고학사상 초유의 초판(礎板)이 나오고 ‘철을 매개로 한 해상왕국’의 실체를 가능할 수 있는 ‘추정 접안시설’이 조사되었습니다. 3세기에서 4, 5, 6세기에 걸친 가마와 석축, 발 등도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은 메운 자리에 녹지 공간을 열고, 일부를 다시 파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몇 채의 가야 집도 복원하였습니다. 이와 바로 붙어 있는 패총의 일부를 다시 발굴하여 시민들이 패총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꾸며 놓았습니다.



그림 5 봉황동 유적

라. 봉황토성(鳳凰土城)

2003년 봉황대 유적의 동편 기슭에서 1,600여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가야 고지의 토성 일부가 처음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토성은 가야지역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것으로 4, 5세기 금관가야 최고 지배층의 왕궁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토성의 규모는 상단 너비 16.5m, 하단너비 22.0m, 잔존 높이가 약 2.8m로 백제의 풍납토성(風納土城), 신라의 월성(月城)에 비교될 만합니다. 또한, 토성의 세부 축조기법을 알 수 있는 당시의 나무 기둥(永定柱)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가야의 우수한 토목기술을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더구나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수로왕이 신답평(新答坪) 일대(지금의 봉황동)에 나성(羅城)을 건립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점 등으로 보아 금관가야의 궁궐과 전각 등의 외곽에 쌓았던 성체(城體)입니다.

“
우리는 가야를
‘금관가야’라고 칭하고 있지만
그 이름은 훨씬 후의 이름입니다.
원래 가야의 이름은
‘구야국’이었습니다.
”

가야왕도
加耶王都
김해
金海

임학중(前 국립김해박물관장)

가야사를 밝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토성 역시 전 항의 봉황동유적에 포함되어있습니다.

* 가락국기 관련 기록 : '수로왕은 경도를 정하고자...신답평으로 나아가...이 땅을 개척하여...1,500보 주위에 나성과 궁궐의 전각과 여러 관아의 집과 무기고와 창고 등의 터를 구획하고 가궁(假宮 : 임시 궁궐)으로 돌아왔다.'

이 토성은 소방도로를 내기 위한 긴급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고 유적의 중요성에 따라 소방도로의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성벽의 연장선을 추적하고 성 전체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인되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사들이고 보상하여 가야사 연구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합니다. 가야사연구에서 이보다 더 화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추정되는 성의 규모와 그 내부에는 이미 많은 민가가 들어서 있고, 주지하다시피 전기한 김해패총과 봉황동유적이 이 토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7년 초부터 이 일대의 빈터부터 김해시에서 사들이기로 하였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타 자치 단체에서도 귀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6 봉황토성



그림 7 봉황토성 외벽

마. 수릉원(首陵苑)

구 김해공설운동장을 없애고 '가야의 숲'을 조성한 곳인데, 어느 날 '수릉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입니다. 지금은 모두 정비되어 가야말로 시민의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 그 운동장을 폐쇄하고 시민휴식공원을 조성한다고 할 때, 그 지역이 봉황대에서 이어져 오는 조그마한 동산이 잘려나간 곳이고, 동산의 일부 저지대는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고고학 조사를 권유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는 되었습니다. 전면 발굴하라는 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굴조사를 하던 중, 모두 발굴하지 못하고 유적은 덮어 버렸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발굴하여야 할 유적입니다.



그림 8 수릉원 목관묘

바. 수로왕릉(사적 제73호)과 수로왕비릉(사적 제74호)

수로왕과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에 대하여서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기록이 자세합니다. 왕비릉과 왕릉에 대한 부분을 읽어 봅니다.

'..... 189년 3월 1일에 왕비가 세상을 떠나니 나이가 백 신일곱 살이었다. 나라 사람들이 마치 땅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하고, 구지봉 동북쪽 언덕에 장사지냈다.....'

'..... 199년 3월 20일에 수로왕이 세상을 떠났다. 나이 백 신여덟 살이었다. 나라 사람들이 마치 부모를 잃은 듯했으며, 슬퍼함이 왕후가 돌아가던 때보다 더했다. 마

가야왕도
加耶王都
김해
金海

임학중(前 국립김해박물관장)

침내 대궐의 동북쪽 평지에 반궁을 세웠다. 높이는 한 발이요, 둘레는 3백 보인데, 그곳에 장사지내고 수릉왕묘(首陵王廟)라고 했다.....'

기록에서 보듯이 수로왕릉은 궁성의 동북쪽 평지에 빈소를 먼저 만들고 다시 이를 수릉왕의 사당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 문무왕 때에 다시 국가에서 폐허가 된 왕릉을 다시 관리하였던 기록도 있습니다. 1580년(선조 13) 영남관찰사 허엽(許曄)이 왕릉을 수축하여 상석·석단·능묘 등을 갖추었고, 1647년(인조 25)에 능비를 세웠으며, “駕洛國首露王陵”이라 새겼습니다. 1884년(고종 21) ‘숭선전(崇善殿)’이라 사호(賜號)한 침묘(寢廟)를 개축하였으며, 안향각(安香閣)·신도비각·석양(石羊)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능의 전면에는 가락루(駕洛樓)·연신루(延神樓)·회로당(會老堂) 등의 건물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한 ‘수릉원’의 시굴조사에서는 왕릉 서편에 호안석축이 발견된 바 있어, 왕릉의 경역이 현재처럼 되기 전에는 바로 이웃하여 연못이 있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한옥체험관 자리에서는 가야의 제방시설과 함께 공방지, 수변의례를 행하였던 흔적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수로왕비릉도 조선조에 들어서 지금과 같이 정비되었을 터입니다. 원래 호계사(虎溪寺)에 있던 파사석탑(婆娑石塔)이 현재의 왕비릉 경내에 옮겨져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면서 가야 이전 시기인 청동기시대의 환호유적이 발굴되기도 하였습니다. 구지봉과 건설공고 내에 있는 고인들과 무관하지 않은 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 9 수로왕릉



그림 10 수로왕비릉

4. 맺음말

다시 한번 가야의 왕도, 김해의 유적을 일람하여 봅니다. 수로가 태어난 구지봉과 그 옆에 있는 수로왕비릉. 동서로 약 1km에 이릅니다. 그 남쪽에는 해반천을 서쪽 끝으로 하여 왕족 또는 지배계층의 무덤이라는 대성동고분군과 ‘수릉원’, 수로왕릉, 김해읍성지 등이 동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그 남쪽에 봉황대와 김해패총, 궁성지로 추정되는 토성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 위치한 구지봉에서 김해패총까지는 약 2km에 이릅니다. 이 동서 1km와 남북 2km 구역은 가야의 왕경역(王京域)입니다. 경주에 신라왕경이 있듯이 김해에는 구야국(금관가야)의 왕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굴한 가야의 무덤 몇 기로는 그나마 부족한 가야사료의 부족을 핑계치 않더라도 가야사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신비의 고대왕국을 여는 열쇠는 이 구역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공방과 집, 무덤, 제방과 뱃길, 신전, 도로, 심지어는 님을 찾아 수만리를 항해하여 온 허황옥의 침실까지도 이 구역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단서를 찾았고 그것을 다 밝히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김해는 급격하게 팽창하는 도시입니다. 인구 10만이던 도시가 불과 삼십여 년 만에 인구 50만을 넘어섰습니다. 시내 곳곳은 아파트로 가득 찼고, 고개만 넘으면 산곡(山谷)을 가득 메운 공장들이 가히 걱정될 지경입니다. 어느 골짜기, 어느 강가에 유적이 없고 환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 적어도 가야의 왕경역만은 지켜야 합니다. 김해는 가야의 고도로서 존재할 때에만 그 의미와 아름다움이 더합니다. 가야는 여러 나라가 각기 다른 집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투기도 하였으나 서로의 문화를 만들었고, 배려하였습니다. 때로는 힘을 합쳐 이웃 국가들과 전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토기를 만들고 생각이 달라도 잘 어울려져 500여년이나 존속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독특한 문화를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소박할 수 있으며, 뛰어나지 않아도 실용적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성’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하나의 왕국으로 합해지고부터는 강압적인 사회가 되어갑니다만, 가야는 서로를 의지하고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바로 평등입니다. 가장 주목하여야 할 가야의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짧아 가야와 김해를 모두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오카야마(岡山)의 문화를 소개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는 혹 일정이 되면, 김해에 있는 가야 유적 뿐 아니라 국립김해박물관에 가서서 가야 유물도 감상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오카야마도 도자기로 유명한 곳이니 상동에 있는 분청사기와 백자 가마도 한번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歴史と 伝統の 岡山

JPN

分島英二



歴史と 伝統の 岡山

分島英二

こんにちは、分島英二（ワケジマエイジ）です。

この中では、最年長です。ということは、長く岡山に住み仕事をしてきたということでもあります。大学こそ、東京の大学を卒業しましたが、生まれてからずっと岡山なので、岡山弁しかしゃべれません。日本語にお聞きおぼえある方はお許しください。

元々、就職は自動車産業にいましたが、自動車を販売しているうちに、小さなアパレルメーカーから誘われて、転職しました。先に自動車の営業の話になりますが、私は、三菱自動車を販売していました。トヨタ自動車や日産自動車のように当時、メジャーではなかったので、とにかく販売には苦労しました。

なんとか、大手に負けないように努めたのが、自動車の営業には汚れてもいい服で行くのではなく、反対に良い服で、おしゃれな格好をして行きました。真っ白い麻のスーツを着て、ポケットチーフをさし、革靴を履いてといういでたちです。自動車の営業マンは、とかく汚れてもいい格好をしていました。というのも、お客さまの自動車を掃除してあげたり、バッテリーの交換をしてあげたりというサービスが当たり前になっていました。結構、小間使いにされていたこともありました。綺麗な洋服を着て行くと、あまり小間使いを要求されることもなく、反対に、主婦の方が軽自動車をセカンドカーとして買い始めた頃で、自動車の運転が苦手な女性たちに運転を教えてあげることで、販売成績を伸ばしていました。

そんな中、私の服装を注意深く見ていた衣類メーカーの関係者の方の提案でアパレルメーカーに引き抜かれました。楽しかったです。岡山の田舎から都会の東京に営業に行くのが。そんな中、私は会社を退社して35歳でルブラという会社を設立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自動車も三番手でしたが、ファッションメーカーとしては、ひよこのような会社を、大手企業と張り合い、同じ土俵で戦えるのが、本当に楽しかったです。自動車とアパレルとどちらも一番手の会社でなかったことが、わたしにたくさんのアイデアを思い付かせて、商品化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例えば、タオル糸を使用してレース織機で生産した手が拭けるレースのハンカチ。タオルマフラーで作った洗えてたためる帽子。どちらも20年のロングセラーです。

最近では、柔道着に使用する布で作った洗えるスリッパ。和紙糸を使用した洗えるバスマット。どの製品も岡山県で製造しています。歴史ある岡山にいと、なぜか長く続く物を作りたいと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

生きてきた日が長いので私の紹介が長くなりましたが^^今から私が住んでいる岡山についてご紹介致します。

岡山は日本中西部に位置する15の小都市で出来た県で、県庁所在地の岡山市と倉敷に人口が集中しており、約200万人が居住する中小都市です。過去の歴史と現在が共存する点は金海と似ています。

古代には隣の広島県の東部とともに「吉備地方」と呼ばれ、日本の古代史が概ねそうであるように韓半島から渡った人々が当時の最新文化と技術を伝え、飛鳥時代に入ると中央集権化が進み、吉備地方は3ヶ所に、奈良時代には4ヶ所に分割されました。

平安時代以降、室町時代に本格的に港町が発達し、市場が開かれたことで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戦国時代末期には備前の浮田家と備中の三村家が成長し、互いに戦い、三村家が滅ぼされた時には毛利家に仕えましたが、やがて織田家の傘下に入り、中国軍団長の豊臣秀吉と共に戦い、織田家の大名として定着しました。

現在、高松城は城跡と堤防だけが残っていますが、歴史的に有名な場所なので日本100城の一つに選ばれ、岡山市郊外のJR備中高松駅周辺に位置しています。豊臣秀吉は森家との和議で備中と美作を獲得し、これを備前宇喜多家の宇喜多秀家に賜り、岡山全体が浮田家の拠点となりました。宇喜多秀家は豊臣秀吉の寵愛を受けて大領主となりましたが、1590年には自分が拠点とする岡山城を建設し、1597年に完工しました。城周辺に城下町が発達し、現在岡山市街地に至ると伝えられています。今ではこの岡山城も代表的な観光地となっています。

現在、岡山城は対岸に位置していますが、ここには現在までも領主が城から船に乗って来る際に使用した船着き場の跡があり、近代には第二次世界大戦当時の空襲により岡山城の天守閣が焼失し、後楽園も大きな被害を受けましたが、その後復元され、現在に至っています。江戸時代には日本三大庭園の一つとして有名な岡山後楽園が1687年から1700年にかけて建設されました。主な観光地の一つである後楽園は日本の3大庭園の一つに数えられ、東京の庭園よりその規模が2倍ほど大きく美しいです。倉敷美観地区も有名な観光地の一つです。

特に倉敷美観地区は国の主要建築物保存地区に選定され、1600年代に物資輸送で繁栄したこの都市は歴史と現在の生活が調和し、観光客に大変人気を集めています。世界的な名画を見ることができる大原美術館や倉敷を代表する繊維工場で生まれ変わった倉敷アイビスクエア、倉敷民芸館などが随所にあり、東西の調和で風情を添えており、特に小さな船に乗って街並みを鑑賞できる倉敷川遊覧は大きな人気を集めています。

昔ながらの伝統商店街を現代風に修理した宿泊施設やゲストハウスなどに滞在しながら、伝統文化と現代が共存する美観地区を満喫してみることをおすすめします。1871年岡山市は岡山県の県庁所在地となり、1889年には市制を施行するようになり、第二次世界大戦末期の1945年は岡山空襲で大きな被害を受け、1000人以上が犠牲になり、10万人以上が家を失いました。

1590年には自分が拠点とする岡山城を建設し、1597年に完工しました。城周辺に城下町が発達し、現在岡山市街地に至ると伝えられています。

歴史と 伝統の 岡山

分島英二

戦後の混乱期を経て都市は順調に発展し、周辺市町村との合併を進めて現在に至るようになり、山陽新幹線岡山駅や瀬戸大橋線が開業して以来、鉄道交通の要地となっています。1996年には国から中核市に指定されています。2009年4月1日に政令指定都市に移行し、区制が施行され、北区・中区・東区・南区が設置され、現在に至っています。

金海市は陶芸の盛んな地域と伺いましたが、岡山で織部焼を作陶されている児島塊太郎（コジマカイタロウ）さんは、自動車を買ってくださっていたお客様の一人で、今でも友人のように親しく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岡山県倉敷市に大原美術館という、世界でも稀な西洋美術を集めた美術館がありますが、その美術品を収集されたのが、画家の児島虎次郎さん。塊太郎さんは、そのお孫さんにあたります。児島塊太郎さんが陶芸を勉強されたのが、岡山県備前市、備前焼で有名な町です。駅を降りた辺りから、備前焼の窯の煙突があちらこちらに見え、とても風情のある町です。備前焼は、釉薬をかけず、高温で焼く陶器で、土と炎の芸術とうたわれるくらい、自然がもたらす味わい深いものです。

始まりは1000年以上前と言われ、越前、瀬戸、常滑、信楽、丹波、備前と日本の六古窯（ロッコヨウ）の中の一つで、長い歴史があります。それでも昔は、絵付けしてある磁器に押されて、長く日の目を見ない時期があったようです。

備前焼が日の目を見るようになったのは、1964年、大阪と岡山の間に山陽新幹線が開通したことに始まります。新幹線の線路の建設中にたくさんの、備前焼のカケラが発見されて、その美しさに陶芸家の方達が驚いたそうです。

それから、古い備前焼、古備前が見直され、現代の備前焼にも大いなる影響を与えて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余談ですが、備前焼で飲むビールは泡立ちが良く、味がまるやかになり美味しいそうです。

残念ですが、私はアルコールが飲めません。金海市は刀剣の町であることも伺いました。刀といえば、岡山県瀬戸内市です。

「三鳥毛（サンショウモウ）」ご存知でしょうか？日本の国宝に指定されている名品で、岡山県瀬戸内市で戦国時代に作られたものですから、町はどうしても帰ってきて欲しくて、2019年から2020年にかけて、瀬戸内市は大きく寄付を募り、購入しました。今は、瀬戸内市の備前長船刀剣博物館に保存されています。

その2点においても岡山県は長く歴史が続いているところかと思えます。人間の命は短いですが、歴史を繋いでくれて残っていけるものがあればいいと思っています。

今日の金海と岡山を紹介するこの時間も。そのような歴史をつなぐ橋の役割の時間になることを願う気持ちで、講演を準備してみました。

ご静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地域

文化

資源

活用の

ご紹介

JPN

間野菜々江



こんにちは、間野菜々江（マノナナエ）と申します。

本日はお招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本の中でも目立って有名ではない岡山県に子供の頃から暮らしています。西隣はご存じ、なります。原爆被爆地の広島県、東隣は1995年の阪神淡路大震災の被災地の兵庫県に岡山県の特に瀬戸内沿岸地域は、「晴れの国」と呼ばれるように、雨が少なく日照時間が長まくす、。

かといって大きな河川もありますので、水が豊富で、災害の少ない地域と言われて それの土地柄から、農業が盛んで、戦前、稲作面積を増やすために南部では干拓が大き行 その稲作面積を増やしました。 なりま干し拓た地。を利用して、イグサ（畳表に使われる植物）や綿花（メンカ）の栽培が盛んに その綿花栽培が、岡山県に製糸工場が次々と生まれていった始まりと言われていいます。

岡山県では県庁所在地岡山市の西に倉敷市があり、大原美術館で有名な都市ですが、このす美。術館を作られたのが、倉敷紡績の創始者の大原孫三郎（オオハラマゴサブロウ）さんでたわめた、しの話になります。岡山市内の中学校、高校を卒業して、服飾デザインを勉強する 岡山市内の専門学校に行きました。

ら服な飾いデとザインという分野は、日本ではやはり首都、東京に行かないとなかなか、モノにな 言われていました。わとたいしうはモノになることを夢見ていたのではないので、少しミシンが踏めるようになれば 感覚でしたので、岡山に残っていたのですが、学校を卒業して、デザイナーとして就職するのに、結構、岡山に仕事先があるなあと感じていました。

そちれよかうらど岡山市内のメーカーにデザイナーとして勤め始めました。 らない日本では1985年のバブルという好景気時代にあたり、作っても作っても商品が足 時代で、連日連夜、遅くまで働いたものです。

岡山県にファッション関係の仕事先が多いというのは、さかのぼれば、大原さんの興した紡績会社から始まっています。綿そ花のを紡げば、糸にする。糸を作れば布を織る。布を織れば、布を染める。洋服を作る。仕事に従事している人が多かったのが岡山県です。メーカーにとってありがたいのは、まず、縫製工場がたくさんあり、しかも、近いので、顔を突き合わせて仕事ができます。得意な工場を選ぶこともできました。多分、流通コストも他の地域に比べてかからなかったと思います。

ただ、販売先だけは東京や大阪など都会に求める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人口が圧倒的に違うのと、今のようにインターネットなどなかった時代です。そ日本れででもう、バブル時代が終わり、作っても売れない時代が長く続きました。インターネット細ト々のとSONYでダ、一を承り商品を作っていたのですが、その頃、流行り始めていた 作った商品を紹介する投稿を始めました。

毎晩同じ時間に投稿するので、少しずつ楽しみに見てくださる方も増えてきて、1年くらい「経こったの頃に、出版社の方から、投稿をまとめて本にしませんか？」と言われました。り出ま版し社たの方ですが、見2てけくださっていたのは知らなかったのですが、それでも時間はたっぷりあ それがこの「月くらいかけて、160ページくらいのものにまとめました。夜中にミシンを踏みながら」です。このネット最盛期に、本など手に取られる方も多くないように思われますが、この本の出版を境に、またわたし自身に仕事が来るようになっていました。それは、大量に商品を作っていた時への 代よりも、1点ずつ丁寧に作るようになっていたわたし 共感に似て、多分、同じ時代を生きてきた方かなと思っ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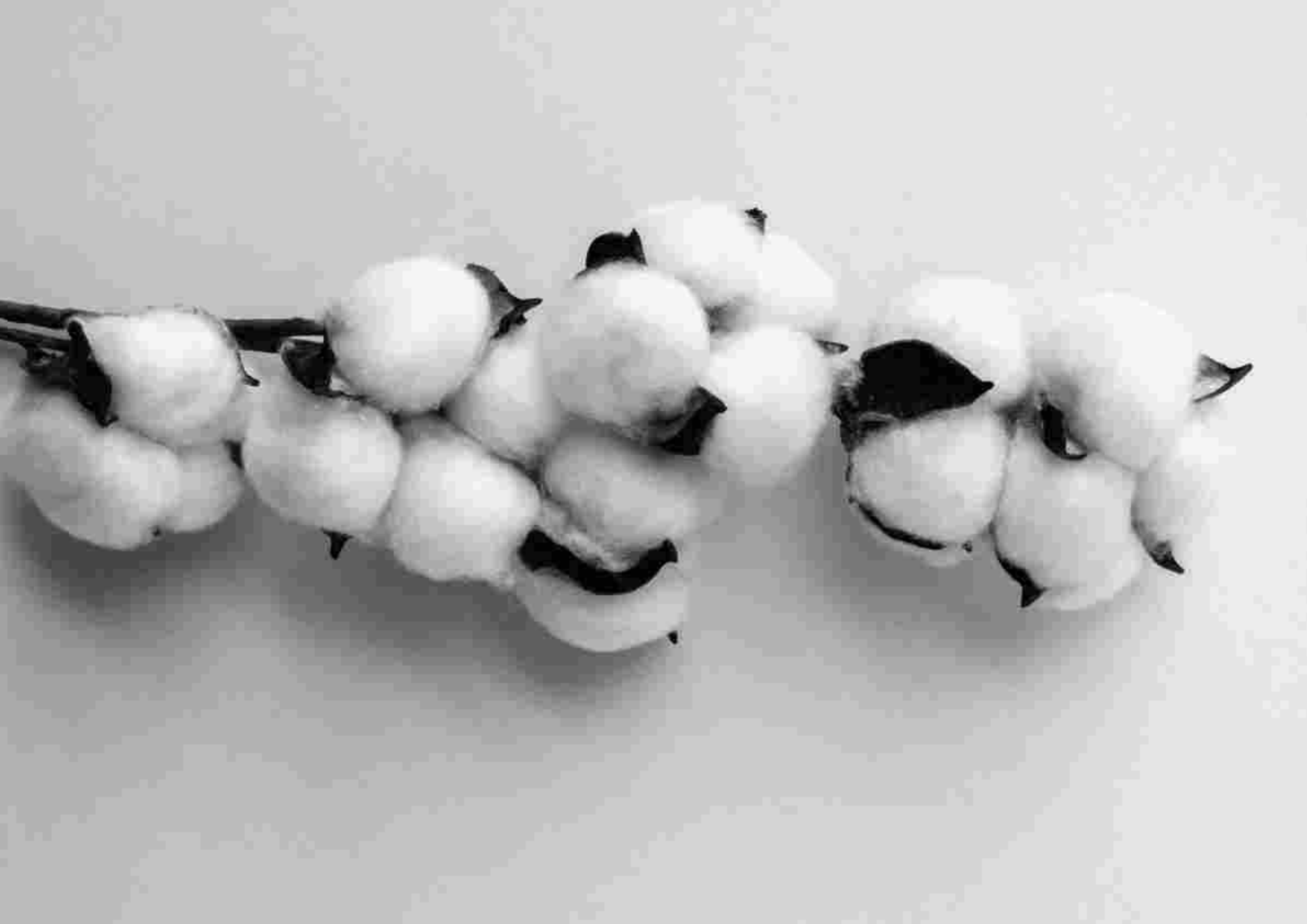
す今。は、岡山県赤磐（アカイワ）市という人口4万人くらいの町に、6年前より暮らしていま家の半分くらいをアトリエにして、商品を販売しています。岡山市内よりもまだ田舎で不便だと思うのですが、この時代、インターネットで検索して全国どこからでも来られるので驚いています。

夜になると通信販売のサイトに注文が入ります。朝、野鳥の声で起きて、庭に植えた花々を楽しむようにもなりました。「未来はますますわからない時代になっていますが、わたしの好きな言葉に、続けければ本物になれる」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良い時も悪い時も変化しながら続ける。そして、自分にとって大切なことはぶれない。そ好きがなわ町たでし仕が事、をさせていただくのはとても幸せに思えます。岡山で働き暮らし続ける理由です。

以上、拙い話をお聞き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未来はますますわからない時代になっていますが、わたしの好きな言葉に、続けければ本物になれる」





岡山

芸術文化

活動

JPN

柳楽晃太郎



挨拶

みなさんこんにちは、柳楽晃太郎です。本日は岡山からやってきました、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私は「織る」行為そのものに着目し表現しています。これまで古着を織ったり、大勢の人と1枚の布を織ったりしながら、「織る」のできる表現について探求しています。

経歴

岡山出身、東京芸術大学大学院で染織を専攻していました。大学卒業後は5年間横浜美術大学で助手を務めました。その後、文化庁在外研修制度で1年間ドイツに滞在。帰国後は作家活動と並行して留学生の美術大学進学支援を行う予備校や東京家政大学で講師を行ってきました。

現在は教育関連の活動は一旦休憩して、表現活動に専念しています。

岡山での活動について

私は2012年～2019年まで岡山県笠岡市白石島で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や個展などの芸術活動を行ってきました。

2018年にI氏賞と言う岡山ゆかりの作家を対象にしたアワードで奨励賞をいただき、最近の活動として、2022年年末に岡山県立美術館で展覧会を実施していました。

こうしたことをきっかけに現在岡山に新たな拠点を作り、芸術活動を展開し始めているところです。

本題「場所のリハビリ」について

今日はせっかくの機会なので私が最近一番売り込みたい、岡山県で取り組んでいる芸術活動「場所のリハビリ」について紹介をしたいと思います。これは岡山県の早沖にある有限会社沖宗のノコギリ屋根の工場を舞台に、そこに携わる人と場所が本来持っていた機能や目的に注目し、歴史を尊重しながらそれを表現の力を借りて再び取り戻していくための芸術活動です。

タイトルにリノベーションではなくリハビリを選んだ理由は、この活動が場所の刷新ではなく復権・復活という意識で取り組んでいること、より多くの人に活動のイメージが伝わりやすい言葉だったことです。工場の機能と目的は物を作り販売をすることです。それは創造のために考えられた空間ともいえます。その機能と目的を取り戻すため、掃除、手入れをしていきます。ここでは将来、作家の制作活動を直に見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展示された作品を購入したり、委託制作を発注することもできます。

これは工場本来の目的と力を活かした芸術の形、新しいビジネスモデルの提案です。これらはこの場所のもつ可能性の一つです。人がものを作るには活力が必要です。ここではそんな力もリハビリしていきます。そのために工場では自然光を照明として使用します。日が昇ったら仕事をはじめ、日が沈んだら帰って自分のことをする。作業中は良く声を掛け合い、挨拶を欠かさないことで互いの関係を維持していきます。

ここは人と時間と向き合うための空間になっていきます。当たり前のことですが、そのことから遠ざかりがちな現代生活に対して、もう一度その当たり前に向き合うことが、その場に関わる一人一人の活力も取り戻していくことに繋がると考えています。この活動は慈善活動や社会福祉活動ではありません。あくまで最終的な目標はこの活動で自分達の生活を成立させるための営利活動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場所や人のリハビリを行う目的も突き詰めると自分達がより良く生きるためです。これを実践して見せてこそ活動の価値を証明することになると考えています。

この活動で大切にしていること

ここからはこの活動で大切に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お話しします。それは掃除と挨拶です。

美しさを作るという意味では掃除は美術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挨拶は付き合いの基本です。リハビリは一人ではできません。その場所で働く人同士の付き合い、取り巻く環境や、ご近所さんとの付き合い、お互いを尊重しあって活動を進めて行くことが長く継続した活動を支える礎になります。これまでレジデンスプログラムで制作をしてきましたが、制作を始める前に掃除をして、場所を整え制作し表現する。

その間、地域の人々と挨拶をかわす。当たり前のようなこの二つの行動をちゃんと実践できる作家があまりいないことがこの10年で実感したことです。そこで今回の芸術活動では掃除と挨拶をしっかり行うことを参加の条件にすることにしました。

この活動の背景

そもそもの始まりは、沖宗さんが私に2022年に工場を新しい作品として建て替えてほしいという要望で訪れました。

初めて工場に入った時、ちょうど夕方で北窓から入った陽光で空間が赤く染まり時間が止まってしまった様な感覚がしました。

花莫産は岡山を代表する産業の一つでした。それが生活様式の変化で井草を使った商品の流通は次第に縮小し、その変化によって活動の手が止まってしまった状況でした。

私はその場所のもつ物を作り出すための空間に可能性を感じ、掃除をしていくことでその可能性を示してみることにしました。これが本活動の始まりでした。

すでに準備は始まっています。実際に掃除や挨拶を続けていくと柱や壁、窓が艶を取り戻し、場所に対しての愛着も芽生えてきました。そこに携わる人の気持ちも力を取り戻していく様子が見て取れました。

“
オカヤマ 성을 건설하여
1597년에 완공했습니다.
성 주변에 성하마을이 발달하
면서 현재 오카야마 시가지에
이른다고 전해집니다.
”

この表現活動で沖宗の場所とそこに関わる人がモノ作りの面でも気持ちの面でも元気になったなどみんなが思えること、それを自分が生きていくための営利活動にしていくことが目標です。

この活動がもたらす未来について

そしてこの活動は将来的に作家とアートイベントでの地域の住民との付き合い方も提案していきます。それはあくまで個人や特定の会社を活気づけていくことを目的にすることが、結果として地域の活性化に繋がるというものです。例えば、地域の活性化という目的で活動を始めたとして。

そうすると積極的にその活動に関わる人と、そうした活動に消極的あるいは無関心な人で違いが生まれます。その違いが、「当事者になった人々」だけが利益を得ているように「当事者にはならなかった人々」の目に映ります。

つまり地域を活性化するという目的はそれをやろうと積極的に取り組む人々の活性化にすり替わってしまうことがあるのです。では地域などという漠然とした括りで考えるのはやめて、正直に積極的に関わろうとする人を活性化すると宣言した方がよほど健全で目的のすり替えが起こらない活動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ました。

これはコロナがもたらした社会の変化で、これまでの活動を振り返る時間ができました。こうしたアートと社会の関わり方しかないのだろうか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こで見えてきたのがこのようなことでした。口で言うだけは簡単で説得力はありません。だからこの活動でそのことをこれから実践して見せようと考えています。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では既存のアートイベントがダメなのか？と聞かれれば、私の答えはNOです。

私自身もこれまでの10年間で、大地の芸術祭の関連イベントや岡山県笠岡市にある白石島で同様のプログラムに参加し、活動をしてきました。こうした活動は作家自身の実績として評価されていくので大変ありがたい経験になり、実際にこうしたプログラムのおかげで自分自身が成長できた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

問題なのは日本の既存の芸術祭やアートプロジェクトが実施する側も受け取る側も「アートで地域を活性化することが目的」という大義名分のような選択肢しか選べなくなってしまう状況や同調圧力のような感覚にあるんだと思っています。

今回の提案で、その選択肢を増やしてもいいんだということが理解してもらえて、アートと市民の付き合い方、アートと社会の付き合い方も今までにない展開を示すことができる未来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告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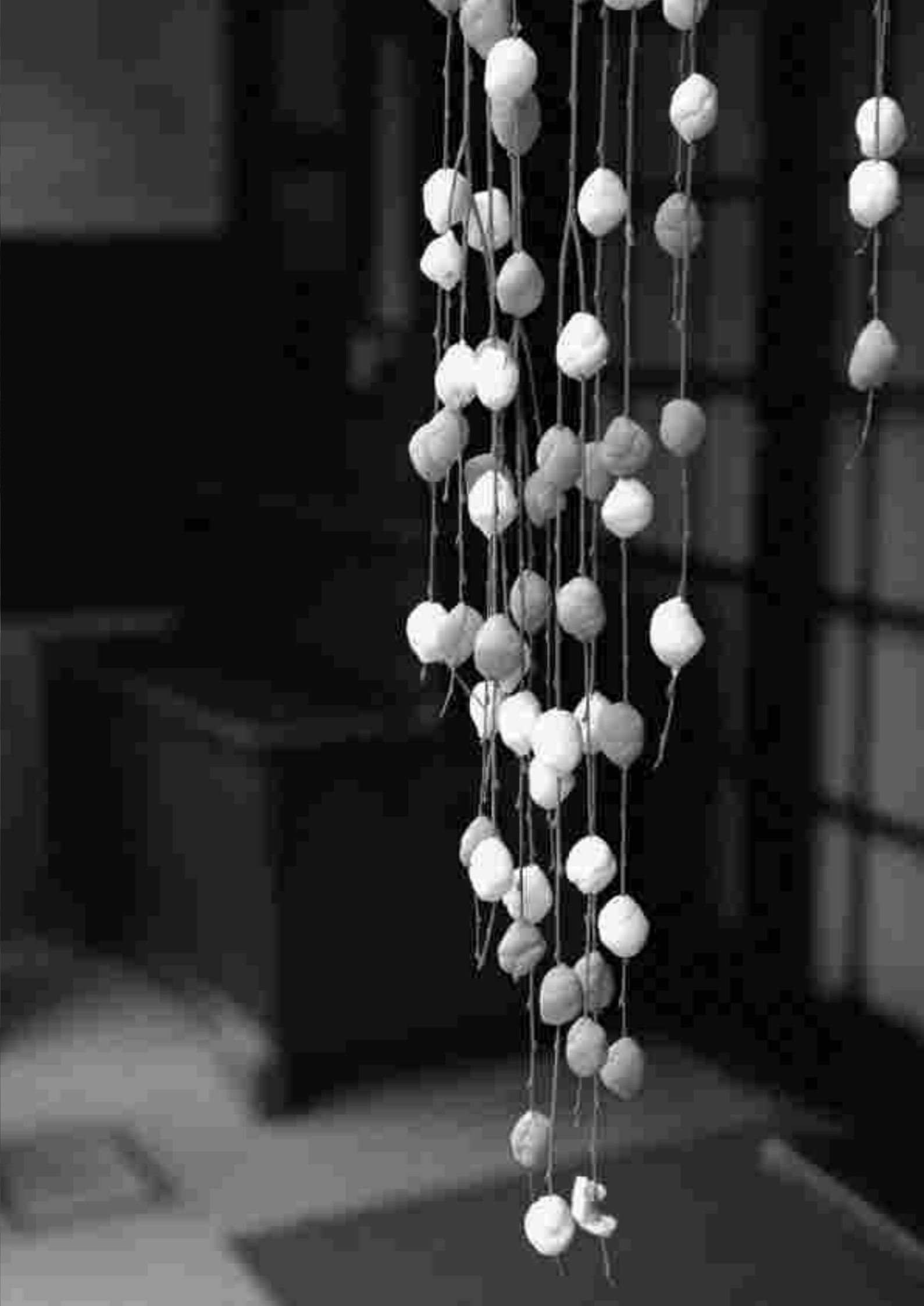
本日紹介した芸術活動「場所のリハビリ」は2023年2月19日に岡山県倉敷市茶屋町にある現地の工場で正式に活動を開始します。

最初の行事として、「煤払い」を行います。本来は新年を迎えるための大掃除で行われる行事ですが、これを、これまで降り積もったこれまでの埃を払い落とし新しい時を迎える行事として捉え実施いたします。このほかにも土壁の修繕という左官の実演や窯建てなど年中行事を増やしていく予定です。

ぜひ日本にお越しの際はこの工場を見にきてください。もちろん作品の購入や施設への設置など実際の商談は大歓迎です！私からの話は以上です。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
アートと社会の付き合い方も今までにない展開を示すことができる未来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



가야왕도

加耶王都

김해

金海

JPN

任鶴鐘(前 國立金海博物館長)



1. 「序文」

伽耶はAD42年に建てられ、AD562年に滅びました。500年以上存続していた古代政治体です。領域は「東は黄山江、西南は広い海、西北は智異山、東北は伽耶山、南は国の果て」と記録されています。

今の洛東江一帯の慶尚道と全羅道東部の一部です。高句麗、百濟、新羅の三国時代と同時期です。それなりの独特の文化、制度あるいは官制、領土がありましたが、「四国時代」とは言いません。残念ながら、厳しい事実です。学者たちが「国家」を規定する枠組みに入らないからです。一部の学者たちは王が存在し、仏教もあり、連盟体にも発展したので、古代国家として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も言います。

一つの統一された王国に統合されず、宗教（当時はおそらく仏教だったが）の公認もなく、法や制度も完備されていないので、古代国家のカテゴリーに入ることができないのは当然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伽耶は明らかにユニークな文化を持っていました。そして私たちはそれを誇っても良いと思います。

わずか30年前までも、伽耶は「神秘の古代王国」と呼ばれていました。歴史の記録が少なく、よく知られているものがほとんどなかったからです。考古学的な発掘の成果によって、神秘ではなくなり始めました。具体化されていきます。ここではまず伽耶を概括し、主に金海の伽耶物語にさらに足を踏み入れることにします。

2. 伽耶史概説

A. 「伽耶」の名前：「伽耶」の名前には「加羅、伽耶、任那」の3つがあります。出てくる文献は次のとおりです。

- 1) 『加羅』 - 『南齊書』、『日本書紀』(加羅)、『梁書』(伽羅)、『北史』、『隋書』(迦羅)、日本書紀(柯羅)、『三國史記』(加良)、『三國遺事』(駕洛・呵囉)
- 2) 「伽耶(カヤ)」 - 『三國史記』(加耶)、『三國遺事』(伽耶)、『新增東國輿地勝覽』(伽耶)
- 3) 「任那」 - 「廣開土王陵碑」、「日本書紀」、「三國史記」強首傳、「眞鏡大師塔碑」など(任那)

B. 「駕洛国」の名前

- 1) 「狗邪国」 - 『三國志』慰靈漢戰弁秦(狗邪國)が最も古い記録である、『三國志』魏書倭人条(狗邪韓國)
- 2) 「伽耶国」 - 『三國史記』、『三國遺事』
- 3) 「駕洛国」 - 高麗文宗3年(1076)年に金管州知事(今の金海市長)が編纂した歴史書だが伝わらず、一然が採録した三國遺事『駕洛國記』が伝える。他の名前とは異なり、金海を指す。
- 4) 「任那」 - 『廣開土王陵碑』の『任那加羅』、『三國史記』降水戦の『任那加良』、『陣經大使塔備』の『任那王族(任那加族)王族』などがあるが、『日本書紀』に主に使用される。
- 5) 「鉄の国」 - 『日本書紀』欽明23年条に出てくる名前。「スエ(Sue)」で読

む。スヘキ(須恵器)と書いて「スエキ」で読む土器などを参考にすれば伽耶を指す。

- 6) 「金官国」 - 金海の伽耶国を統合した新羅がつけた名前で伽耶時代にはなかった
- 7) 「金管伽耶」 - 駕洛国を征服した新羅が金海で生産される鉄を管理するために設置した行政単位である「金官郡」に由来

C. 伽耶(カヤ)以前の世界

- 1) 青銅器時代 - 石斧、模様のない土器、青銅器、稲作、支石墓などが代表。内洞支石墓、金海貝塚D区支石墓、亀山洞ウラム支石墓、首露王陵と西上洞支石墓、ユルハとチャンユ支石墓、亀山小前支石墓など(紀元前2千年～紀元前3世紀あるいは紀元前後)



亀山洞支石墓



亀山洞支石墓

- 2) 初期鉄器時代 - 韓国式銅剣、鉄器の登場、首露を迎えた9村長。金海貝塚D区甕棺、鳳凰台歎呼など(紀元前3世紀～紀元後42年)

D. 三韓あるいは初期伽耶：紀元前後から3世紀までは一般的に三韓とされる。考古学では原三国時代。初期伽耶としてもされる。木棺墓社会。茶戸里、伽耶の森3号木棺墓

E. 伽耶：五加耶あるいは六加耶と列国。小国から大国へ(陽東里墓と大城洞墓)。鉄の王国、海上王国(二つの船着場)、蒲上八国の戦争(3世紀初頭)、広開土大王との戦い。連盟体

伽耶は明らかにユニークな文化を持っていました。そして私たちはそれを誇っても良いと思います。

가야왕도
加耶王都
김해
金海

任鶴鐘(前 國立金海博物館長)

F. 任那日本府説 - 日帝植民地期を前後して日本歴史学者たちが主張した学説の一つ。倭国の神功王后が369年に伽耶を征服した後、統治したという。『日本書紀』の神功王后三韓征伐説話をもとにまとめたもの。植民地支配のために作られた虚構にすぎません。最近、伽耶に駐在する倭国の使節団という主張とともに、咸安の阿羅伽耶にあった特殊外務官署などに再解釈されることもある。

3. 伽耶王都 金海へ、もう一步踏み込む

A. 狗邪国の王都

ご存知のように、金海は伽耶の高地です。六伽耶の長子として、古代韓半島東南端に絢爛な文化を開花した神秘の古代王国「伽耶」が発祥した地域です。伽耶は謎に満ちていました。記録としてあまり残っていないからです。そのような謎が徐々に明らかにされ、私たちの前に近づき始めたのはわずか30年前、金海大成洞の古墳群が発掘調査されてからです。伽耶の高地の真ん中にありながらも注目されていなかった小さな丘陵一つが考古学的に発掘され、伽耶の王や貴族たちの姿を私たちに伝え始めました。学術的な成果はもちろん、これまで沈滞の沼に陥っていた伽耶史研究が活性化されました。それ以来、現在まで金海では実に途方もない発掘が行われ、伽耶史の多くの謎が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

考古学という学問の成果であり快挙でした。普通、「金官伽耶」という伽耶の長男国はもともと「狗邪国」でした。今はみんな「金官伽耶」と呼んでいますが、その名前はずっと後の名前です。狗邪国あるいは金官伽耶の王都に残っている王京遺跡のいくつかの例を一覧表示します。

B. 亀旨峯 (史跡第429号)

首露王が赤色のふろしきに包まれ、空から降りてきた場所です。かわいい小さな山です。私たちが持っている数少ない建国神話が息づいているところです。誰もが知っているように、その頂部の片側に支石墓が一つ置かれています。小山の麓では青銅器時代の環濠、そして多くの無文土器が採集されます。この支石墓と環濠、無文土器は、市内のあちこちに残っている支石墓とともに、まさに首露王を推戴した九干勢力の痕跡です。一国の始祖が生まれたところ。その始祖を迎えてそこに住んでいた人たちの生活の跡。当然、史跡に指定されています。



亀旨峯(クジボン)



亀旨峯支石墓

C. 鳳凰洞遺跡(史跡第2号)

1900年代初めに日本人の手によって初めて調査されて以来、60回あまりも発掘されました。韓国で初めて炭化米(炭化米)が出土したところでも有名です。中国の新しい貨幣である華川(貨泉)、日本夜刀この(彌生)時代の甕棺(甕棺)などが出土したところです。最近になってその重要性が明らかになった墓地がある巨大な支石墓が調査されることもありました。私たちはそこを金海 会峴里 貝塚と学びました。

教科書にも載っている韓国史蹟第2号です。慶州の砲石停止が史蹟第1号なので伽耶の高地に史蹟第2号を付与した象徴性も分かります。その後、貝塚の隣の丘陵地と海盤川街道がすべて遺跡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現在は遺跡の範囲をさらに広げ、鳳凰洞遺跡に史蹟を拡大指定した場所です。「伽耶人体験村」を作るために鳳凰台西側の海盤川沿いを大規模に発掘したところ、韓国の考古学史上初の初版が出てきて、「鉄を媒介とした海上王国」の実体を見極めることができる「推定接岸施設」が調査されました。3世紀から4、5、6世紀にかけての窯や石垣、畑なども確認されました。

今は埋めた場所に緑地空間を開き、一部を掘り直して池を作りました。数軒の伽耶の家も復元しました。これとともに付いている貝塚の一部を再び発掘し、市民が貝塚の内部を覗き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鳳凰洞遺跡

普通、「金官伽耶」という伽耶の長男国はもともと「狗邪国」でした。

任鶴鐘(前 國立金海博物館長)

D. 鳳凰土城(ほうおうどじょう)

2003年、鳳凰台遺跡の東側の麓で1600年余り眠っていた伽耶高地の土城の一部が初めてこの世に現れました。この土城は伽耶地域では初めて確認されたもので、4、5世紀の金冠伽耶の最高支配層の王宮と推定される場所です。土城の規模は上段幅16.5m、下段幅22.0m、残存高さ約2.8mで百済の風納土城、新羅の月城と比較に値します。また、土城の細部築造技法を知ることができる当時の木柱などがそのまま残っており、伽耶の優れた土木技術を垣間見ることができる手がかりを提供しました。さらに、『三国遺事』の駕洛国記に水路王が新踏坪一帯(現在の鳳凰洞)に羅城を建立したという記録が出ている点などから、金官伽倻の宮殿や殿閣などの外郭に築かれた城体です。伽耶史を明らかにする画期的な資料として評価されています。この土城も前項の鳳凰洞遺跡に含まれています。

* 駕洛国記関連記録: 「首露王は経度を定めようと…」新踏坪に進み…この地を開拓して…1,500歩の周りに羅城と宮殿の殿閣と様々な官衙の家と武器庫と倉庫などの敷地を区画し、仮宮(仮宮)に戻った」。



鳳凰土城



鳳凰土城外壁

この土城は消防道路を出すための緊急発掘調査で確認され、遺跡の重要性により消防道路の計画は取り消されました。今はこの城壁の延長線を追跡し、城全体の範囲と規模を把握することが続いています。それが確認できれば、城の中にあるすべての施設を買い取り、補償し、伽耶史研究の百年大計を立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伽耶史研究において、これよりもっと緊急で重要なことがどこにあるでしょうか。推定される城の規模とその内部にはすでに多くの民家が建っており、周知のように伝記した金海貝塚と鳳凰洞遺跡がこの土城とつながっています。2007年初めからこの一帯の空き地から金海市で買い入れることにし、現在も続いています。本当に幸いなことです。他の自治体でも手本にしてほしいです。



首陵苑木棺墓

E. 首陵苑(スヌンウォン)

旧金海公設運動場をなくし、「伽耶の森」を造成したところですが、ある日「首陵苑」と名付けられた場所です。今はすべて整備され、まさに市民の公園になっています。2004年にその運動場を閉鎖し市民休息公園を造成するという時、その地域が鳳凰台から続く小さな小山が切り取られた場所で、東山の一部低地帯は遺跡がそのまま残っていると推定し考古学調査を勧めました。紆余曲折の末、そうはなりませんでした。全面発掘の指導委員会の決定により発掘調査を行っていたところ、すべて発掘もできず遺跡は覆ってしまいました。いつかは再び発掘しなければならない遺跡です。

任鶴鐘(前 國立金海博物館長)

F. 首露王陵(史跡第73号)と首露王妃陵(史跡第74号)
首露王とインドのアユタ国の王女ホ・ファンオクについては、「三国遺事可楽国記」に記録が詳細です。王妃陵と王陵についての部分を読みます。

'..... 189年3月1日に王妃が世を去った時、年齢は百五十七歳だった。国の人々がまるで地面が崩れたように悲しみ、九池峰東北側の丘に葬られた……」

'..... 199年3月20日に首露王が世を去った。年百五十八歳だった。国の人々がまるで両親を失ったようで、悲しみが王后が亡くなった時より大きかった。ついに宮殿の東北側の平地に賓宮を建てた。高さは一歩で、周囲は三百歩だが、そこに葬られて首露王陵と呼ばれた……」

記録からも分かるように、首露王陵は宮殿の東北側の平地に殯所を設け、これを首露王の祠堂としたといえます。新羅の文武王の時、再び国が廢墟となった王陵を管理した記録もあります。1580年(宣祖13)、嶺南觀察使の許葉が王陵を修築し、上座・石段・陵墓などを備え、1647年(仁祖25)に陵碑を建て、「駕洛国首露王陵」と刻みました。1884年(高宗21)、「崇善殿」として賜号した枕廟を改築し、安香閣・神道碑閣・石羊などを設置しました。

陵の前面には駕洛楼、延神楼、会老堂などの建物があります。また、伝記した



首露王陵



首露王妃陵

「水陵苑」の試掘調査では、王陵の西側に護岸石垣が発見されており、王陵の境域が現在のようになる前はすぐ隣にあり、池があったことも分かります。現在の韓屋体験館の跡地では、伽耶の堤防施設とともに供防止、水辺儀礼を行っていた跡が確認されました。

首露王妃陵も朝鮮王朝に入って現在のように整備されているはずですが、もともと虎溪寺にあった破邪石塔が現在の王妃陵境内に移されています。駐車場の建設に伴い、伽耶以前の時期である青銅器時代の環湖遺跡が発掘されました。亀旨峯と建設工業高校内にある支石墓と無関係ではない遺跡と見ることができます。

4.結び言葉

もう一度、伽耶の王都、金海の遺跡を一覧してみます。首露が生まれた亀旨峯とその隣にある首露王妃陵。東西に約1kmに及びます。その南には海盤川を西端にして王族または支配階層の墓という大成洞古墳群と「首露苑」、首露王陵、金海邑城址などが東につながっています。その南には鳳凰台(ボンファンデ)、金海貝塚(キムヘペチョン)、宮城と推定される土城が残っています。

一番北に位置する亀旨峯から金海貝塚までは約2kmに達します。この東西1kmと南北2kmの区域は伽耶の王京駅です。慶州に新羅王京があるように金海には九夜国(金官伽倻)の王京があります。これまで発掘した伽耶の墓数基では、伽耶史料の不足を言い訳にしくなくても、伽耶史を復元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神秘の古代王国を開く鍵は、この区域の中にすべて入っています。工房と家、墓、堤防と航路、神殿、道路、さらには王を探して数万里を航海してきたホ・ファンオクの寢室までもこの区域に残っています。私たちはその手がかりを見つけ、それをすべて明らかにするための準備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金海は急激に膨張する都市です。人口10万だった都市がわずか30年余りで人口50万を超えました。市内のあちこちはアパートでいっぱい、峠さえ越えれば山谷を埋め尽くした工場がとても心配になるほどです。どの谷、どの川沿いに遺跡がなく、環境が重要ではないでしょうか、少なくとも伽耶の王京駅だけは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金海は伽耶の古都として存在してこそ、その意味と美しさが増します。伽耶は様々な国がそれぞれ異なる集団を形成していました。互いに争ったりもしましたが、お互いの文化を作り、配慮しました。時には力を合わせて隣国と戦争をすることもありました。異なる土器を作り、考え方が違ってよく調和し、500年余りも存続しました。私たちに独特の文化を残してくれました。

それが派手でなくても素朴で、優れていなくても実用的でもあります。お互いが違うことを理解して配慮するのが読めます。「多様性」です。高句麗、百濟、新羅は一つの王国になってからは強圧的な社会になっていきますが、伽耶は互いを頼りに認め合いました。多様性を認めるのが平等です。最も注目すべき伽耶のアイデンティティだと思います。

時間が短くてカヤと金海の両方を教えることができなくて申し訳ありません。今日岡山の文化を紹介してくださった先生たちは、もし日程が合えば金海にある伽耶遺跡だけでなく国立金海博物館に行って伽耶遺物も鑑賞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特に岡山も陶磁器で有名なところですので、上洞にある粉青沙器と白磁窯もご覧ください。

김해 오카야마 국제 金海-岡山 国際交流フォーラム 교류포럼

발행일	2023년 2월
발행인	김해문화재단대표 손경년
발행처	(재)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060 김해문화의전당 M층 TEL. 055-339-2042 WEB. 문화도시김해.kr
총괄	김해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기획	도시미래파트
담당	김미수
편집/디자인	(주)오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SK테크노파크 넥스동 304호 TEL. 055-262-2116 WEB. oan.kr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김해시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본 자료집의 모든 권리는 김해문화도시센터에 있으며 본 센터의 서면 동의 없이는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